

'무늬' 만 종단... 불교위상 떨군다

현재 불교 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된 25개 종단이 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새 군소종단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2백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실을 갖추지 못한채 난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체성이 모호한 종단이 많다는 것이다. 사찰간

판을 건 '점집'이 있는가 하면 스님이 역술행위를 포교의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지적을 받는다. 이에따라 무분별한 종단난립을 방지하고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단 난립의 실태와 개선해야 할 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우후죽순 종단 이대로 좋은가?

- ① 정체성 모호한 종단 많다
- ② 승려양성·수계체계 강화 시급하다
- ③ 내실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자

사찰간판 건 '점집' 역술행위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순례 씨(39)는 최근 집 근처의 '대한불교○○○○○○사'라고 쓰인 포교당을 찾아갔다 10여 분만에 나와 버렸다. 사찰옆의 한 스님이 '사주에 마가 끼었다'며 수백만원을 들어 제사를 지낼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평소 들어본 바 있는 종단의 사찰이어서 믿음을 갖고 갔는데 '역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분개했다. '△△사'에 다녀온 김진희 씨(56·서울 용산구 이촌동)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주지 스님은 잘 알려져 있는 '△△종'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그 종단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신도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종'에서 별명당한 상태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에는 이 같은 사례가 한 달에 2-3건씩 접수된다. 각 종단으로 연락하거나 아예 연락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경우는 더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종단협에 가입돼 있는 25개 종단들은 일명 '점집'이 소속 종단의 사찰간판을 내걸고 정법과는 거리가 먼 역술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지 못하고 있다. 사찰등록과 승려법안신고, 각종 증명 발급 등을 통해 발

생하는 수입이 종단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종단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비유승려'로 지목돼 탈종한 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품집'을 불리는 경우도 있다.

유력종단과 유사한 이름 걸기도

유력종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과 종지(宗旨)를 뚜렷이 내세우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 종단이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단설립 신고가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199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과 유사한 '○○불교 조계종' 또는 '조계○○종'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20여 곳에 달할 정도다. 종단 명의를 특허 출원하는 등 유력종단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이유로 종단을 침범해 불자들을 현혹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신생종단의 경우 형식적인 조직체계만 갖춰진 종단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소속 사찰이나 종도가 극소수고 운영·수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1사찰 1종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목상의 종단 뿐인 곳도 있고, 10여 사찰로 종단을 설립해 소속 승려 모두가 종무기관 직책을 나누어 맡기도 한다. 교화·교양의 차이보다는 사찰과 승려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종단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종단 난립 불교계 공동 대응해야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불교 전체와 전통 있는 종단에까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찰과 종단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종단으로 옮기거나 아예 개종을



고려하는 불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승려자질 향상, 무분별한 종단난립 방지 등 종단의 건전성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정체불명의 신생종단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범종단적 연대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단협과 같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탈법적으로 이뤄지는 반불교적인 행태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각 종단에서도 승려양성 및 수계체계 강화, 사찰 또는 스님의 가입심사제 마련, 역술행위 등에 대한 감찰 강화, 종단별 피해접수처 운영 및 피해사례집 발간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앞서 이를 시정하려는 각 종단 집행부의 의지와 종단내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건국대 교수)은 "종단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는 것은 종단은 물론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이는 결국 불교와 종단이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각 종단 스스로 자기정화를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종단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등을 통해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승종 총무원장 혜심스님 취임

대승종은 7월 14일 성남 분당 뉴타운웨딩홀 5층에서 제9대 총무원장 혜심스님(홍천 실상사의 취임법회를 열었다. 3백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혜심스님은 종단 화합과 종지중흥 진작을 골자로 한 해신책을 제시했다. 취임사에서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작고 알찬 종단'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법화종 창종 58주년 법회 봉행

법화종은 창종 제58주년을 맞아 7월 15일 서울 총무원 3층 대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운영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수봉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륜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직무대행 혜륜스님은 봉행사에서 "그동안 종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참회와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 왔다"며 "종단 화합과 도야, 나아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종도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종단소식

총화종 "홈페이지 오세요"

총화종 인터넷 홈페이지가 기존의 도메인 네임인 www.chonghwajong.org와 http://chonghwajong.org 외에도 '총화종' 또는 '대한불교총화종' 등 한글로 접속이 가능해졌다. 또 www.chonghwajong.net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최근 한달여간 홈페이지 접속이 안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종단의 주요 행사를 비롯해 소식, 소속 사찰 안내 및 행사 등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도연수 일정 확정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7월 8

일 서울 총무원에서 중앙간부회의를 열고 종도 연수교육 및 기타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종도 연수교육은 10월 17-20일 연양 중앙교육원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 사미·사미니 수계법회를 열기로 했다. 또 10월 22-27일 중국 성지를 찾아 순례행사를 갖기로 결의했다.

총지종 49일 불공 회향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5월 28일부터 전국 사원에서 진행해 온 하반기 49일 불공을 7월 16일 회향했다. 이날 부산경남교구와 대구경북교구는 하반기 49일 불공의 공덕을 물증생에게 회향하기 위한 방생법회를 합천담양문정교와 함양농월정에서 각각 봉행했다.

울릉도에 문화체험 무대 선다

진각종, 8월 9~12일 회당문화축제

진각종이 주최하는 제4회 회당문화축제가 8월 9-12일 울릉도 일대와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진각종 통리원 문화사회부가 주관해 울릉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및 지역 문화복지증진 일환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9일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체험 마당이 3박 4일 동안 펼쳐진다. 10일에는 도동항에서 울릉도 지역발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물날

리 행사와 트로트 한마당, 국악공연 등 개막을 알리는 무대가 마련된다. 본행사가 열리는 11일에는 '무진서원, 새 생명의 희망'을 주제로 타악 퍼포먼스 공연, 불꽃놀이, 영상 레이어쇼, 가수 정태춘씨 공연을 비롯해 풍등 및 단주 제작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는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회 주최의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과 진각종 신교

도 대상으로 진각성종 회당 대중사 탄생지 금강원 순례법회도 함께 진행됐다. 또 축제 기간 중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과 (사)열린사회주관으로 울릉도 도동, 저동, 남양, 북면 등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진각종은 전야제와 본행사 등 회당문화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진각종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회성 정사는 "종단에서 지향하는 문화종단으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종단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중앙청년회

새 집행부 구성

천태종 중앙청년회 제16대 남정락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7월 16일 구인사에서 취임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임 집행부는 앞으로 조직 활성화와 천태종 신하단체간 연대 강화, 청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환경운동 참여, 청년회보 발간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남정락 신임 회장은 "침체에 있는 청년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회의 활동을 시행활동 중심으로 사회참여

확대 등 참여 중심으로 다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남정락(부산 삼광사) △부회장 김철진(마산 삼학사), 장필욱(춘천 삼운사), 박병렬(삼광사), 임미진(울산 정광사) △총무부장 김형근(종주 삼총사) △교무부장 김상덕(대전 광수사) △재무부장 이정미(서울 관문사) △사업부장 정성돈(삼광사) △기획부장 강대영(포항 황해사) △동원부장 배기남(진주 월강사) △조직부장 제인호(고성 보성사) △홍보부장 김세훈(서울 삼통사) △심외부장 오세창(대구 대성사) △문화부장 김승태(삼운사) 박봉영 기자

古新堂 활성생활도

사찰 실내 황토편트·바닥재의 대혁신!

환경친화성 결착제 개발로 길러진 현상이 없는 안전 무공해 **활성생활도** 편트 및 바닥재

활성생활도의 효능

- **원적외선 방출**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균효과 및 항균 방출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적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 전자파 차단
-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활도는 탈취능력이 탁월하다.**
 -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각종 건축자재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포름알데히드(HCHO) 각종 오염 물질들이 발생하며, 활성생활도는 이러한 물질들을 흡착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등 각종 질환을 예방.
- **습도 조절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조절능력 탁월)
 - 황토는 외부가 습하면 수분을 흡수하였다가 외부가 건조해지면 수분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 본 활성생활도 제품을 상대습도 80%의 실내에서 36시간 후 수분 흡수량이 192g^m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습도는 20%의 실내에서 흡수한 수분을 약 71%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였다.

활성생활도 시공 모습

이런 분들에게 활성생활도 제품을...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숙취감 해소

활성생활도를 이용하여 이제는 쉽게 바르세요!!

염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성유질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페인트입니다. 갈라지고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 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에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합니다.

칠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냄새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防霉 防水" 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 ceo@ks7700.co.kr

敎宗本刹奉先寺
http://www.bongsunsa.net

2004 봉선사

광릉수목원 연꽃축제

연꽃 그 물들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불교의 상징인 자비희사의 정신을 표현하는 연꽃을 통해 함께하며 나누는 아름다움을 이웃에게 전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 **기간** : 2004년 7월 24일(토) ~ 25(일)까지
- 🌸 **장소** : 봉선사 - 수목원
- 🌸 **주최** : 봉선사, 조계종 총무원
- 🌸 **주관** : 연꽃축제 봉행위원회
- 🌸 **후원** : 봉선사 신도회, 광릉수목원, 남양주 구리시 시민연합회, 전수현안 봉선사, 불교방송, 불교신문, 불교TV, 남양주시청, 구리시청
- 🌸 **문의** : 봉선사사무실 ☎ 031)527-1951-3
홈페이지 http://www.bongsunsa.net
안글도메인 : 봉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